

## 총체적 위기다

인간은 시간 안의 존재이다. 육망의 중심 축을 살다 보면, '시간자체를 소유할 수 있다'는 상상까지 하게 된다. 순간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상상은 비극을 초래하는 원천이 된다. 반야의 지혜는 인간이 시간 안의 존재임을 성찰 할 때 터득되는 지혜이다. 그것은 바로 무소유의 정신과 상통한다.

### 관용-유연성 발휘 절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위기감이 사회전반에 급속하게 만연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은 악몽의 '검은 월요일'로 뇌리에 각인되어, 3년 전의 IMF 위기를 다시 느끼게 하였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위기감이 사회전반에 급속하게 만연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은 악몽의 '검은 월요일'로 뇌리에 각인되어, 3년 전의 IMF 위기를 다시 느끼게 하였다. 유가가 치솟고, 대우차 인수 포기로 구조조정 의 부진은 다시 불거지고,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고, 정치권은 수많은 악재에 대처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로 바뀌고 있다. 더욱이 전국의 의대교수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초강경 성명서가 나온 바 있지만, 정치권은 '너흰 떠나라, 내 갈 길은 간다'는 떠돌이 무반말이다.

현금의 총체적 사회위기감은 <도덕경>의 이러한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삶에서 벗어나 자진하여 죽음으로 뛰어드는 수가 있다. 제 수명을 다 하는 사람이 열 중 셋이요, 단명으로 죽어 가는 사람이 열 중 셋이요, 장수할 사람이 사지(死地)로 뛰어든 수가 있는 사람 역시 열 중 셋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지나치게 오래 살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늘은 장수를 수명으로 주었던 인간의 과욕이 오늘 사지(死地)를 만든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삶에서 관용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결여될 때, 생명의 풍요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증식 축으로 삼는 사회위기감이 고조되기 마련이다.

의약분업의 경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근본취지는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근본취지를 지나치게 경직하게 의식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종국적인 피해는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의 복리와 이익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 없다.

약을 어디에서 사고 치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는 환자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환자의 자유선택권을 침해하는 꼴이 된다. 현명한 환자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운데, 의료 정책의 유연성마저 상실한 나머지,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다. 종전보다 두 배가 된 진료비와 약값은 유가인상에 따른 전기료의 대폭 인상분과 함께 국민들의 살림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고도 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맡아야 하는지, 이전에 만반의 대책을 왜 수립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이다.

앞으로 몇 개월을 열게 되면 우리 경제가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이 순간에도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마이 웨이'

만을 의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누구는 시간 안의 존재임을 망각하여 사태의 공정성을 직시하지 못하면 결국 집단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특정 개체를 살리되 전체를 고려하지 않으면, 종국적으로 사회위기는 과국으로 치달게 될 것이다. 이제는 누란(累卵)에 처한 총체적 사회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생명화육의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반야의 칼'이 더 없이 소중한 때다.

탐욕도 성냄도 벗어놓고 '반야의 칼'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과 통한다고 할 것이다. 현금의 비극은 사회가 전 응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결여될 때, 생명의 풍요가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증식 축으로 삼는 사회위기감이 고조되기 마련이다.

의약분업의 경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근본취지는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그 근본취지를 지나치게 경직하게 의식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종국적인 피해는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근본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김용한  
 (충북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 근거없는 성과급... 퇴직금 누진제 계속 적용

### 노조달래기 특별보로금... 운전기사 연봉 6100만원

## '혈세' 축내는 공기업들

철도부 산하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가 각각 자회사로 운영하던 관리공단들을 통합해 설립한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 감소로 99년 이후 130여 명의 유류인력이 생겼는데도 재택근무 또는 보직대기 발령을 내 32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차량운전기사의 연봉을 6100만원, 사무보조원의 연봉을 4300만원이나 줄 정도로 고임금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포항제철 등 14개 기관은 97년부터 올해까지 특별성과급, 특별려금, 보로금 등의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임직원에게 444억원의 지급했다.

에 중식보조비 등을 포함시켜 139억원의 과다책정했고, 국민은행 주택은행 서울은행 등 40개 기관은 99년부터 폐지된 퇴직금 누진제를 존속시키고 있어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을 추가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종합화회의 경우 96년부터 99년까지 14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면서도 막대한 청산계획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고, 한국감정원 등 36개 기관은 1572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했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94년 이후 국내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조4천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IMF시기인 99년에 임금을 15.6% 인상했는가 하면, 현직 임원 57명에게 4962억원의 성과급

## 휴대전화-PC통신 수사기관 감청 오히려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수사기관이 의뢰한 일반 감청 행위가 70% 이상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의 감청 행위는 특히 인터넷 E메일은 물론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어 또 다시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올해 상반기중 수사기관이 의뢰한 일반 감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82건보다 37.4% 줄어든 1115건이며, 긴급 감청도 전년도 96건에서 68건으로 29.2%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감청 건수만을 집계한 것으로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PC통신 등에 대한 통신자료 협조요청까지 감안하면 수사기관의 감청 행위는 오히려 대폭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휴대전화의 통신자료 협조건수는 99년 상반기 4만8215건에서 올 상반기 5만3891건으로 11.8% 증가했고, PC통신은 6111건에서 1079건으로 76.6%나 증가했다. 또 상반기 휴대전화 감청 건수는 128건, 통화 내용에 관한 자료 제공건수는 5만3891건에 달하는 등 휴대전화가 집중 감청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가입자의 주소나 성명, 상대방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협조는 경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6.8%가 늘어 유선전화의 요청건수(1만9천여 건)를 2.8배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기·플래카메라를 이용해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물론 휴대폰 사서함 비밀번호나 전화통화 내용·주인등록등 본을 수시로 빼내는 등의 심부름센터 불법행위나 일부 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 등이 이미 위협수위를 넘어선 마당에 정부마저 감청을 강화한다면 국민들은 누굴 믿고 생활하라는 것인지 답답해한다.

<전통성왕수행경>에 "마땅히 법에 의해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말이 있다. 수사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감청은 마땅히 줄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기차타고 복벽 고향 갈날 온다  
 역사적인 경의선 철도·도로 복원공사 기공식이 열린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서울 육천원 신도 정순녀(60) 불자가 황해도에 살고 있는 작은 아버지 정운섭씨를 만나길 기원하며 절을 올리고 있다. 사진제공=오재덕씨(사진작가)

## 종교인 사회영향력 '미약'

한국 언론재단 조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종교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7월말부터 한달여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성인남녀 1200명(18세 이상 65세 미만)을 상대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언론매체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 조사에서 '우리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사회집단 중 종교인이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인(56.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론인(9.6%), 관료(9.2%), 기업인(7.5%), 시민운동가(6.0%), 법조인(3.2%), 의료인(1.6%), 교육자와 노조(각 1.4%) 순이었으며, 종교인은 군인과 함께 1.3%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지도자가 드물고, 종교의 사회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각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부족해 사회가 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 "컴퓨터 어린이 정서 악영향"

美 아동단체 보고서 컴퓨터가 어린이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의 통념과 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아동옹호단체인 '아동연합'은 '아동이 컴퓨터 사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보고서에서 "컴퓨터는 어린이들에게 시력저하 비만 등 신체적인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정신적 발달장애를 유발하기 쉽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등 아동기에 습득해야 할 중요한 자질을 배우는 데 컴퓨터가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에게 또래 친구들과의 게임이나 체험학습과 같은 직접 경험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 불자정보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포교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부산시</li> <li>● 법당: 42평</li> <li>● 방 2개: 주방 삼층불 협성 신중 후불탱화 연단 시설 완비</li> </ul> <p>전세 시설비 합 3000만원          051) 338-5739 / 333-5789</p>	<p style="text-align: center;"><b>암자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가평군(임자)</li> <li>● 평수: 1000평 이상 법당, 요사채,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기타등등</li> <li>● 가액: 답사후 결정, 전세 월세 매매가능</li> </ul> <p>계곡과 물이 좋음. 신세 좋음          017)708-0635</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울산 인양</li> <li>● 대지: 70평 건물 약 60평, 법당 20평 공양실 16평</li> <li>● 특징: 사찰에 모든 집기류 무상 제공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3개, 욕실 2개</li> <li>● 가액: 8천만원 (전세가능)</li> </ul> <p>052)254-1929          011)9315-1200</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양평군 서흥면 문호리 (북한강 부근)</li> <li>● 대지: 404평 (월 주변 땅 매입 가능)</li> <li>● 특징: 산속에 약수, 연못 (연못·임어)</li> <li>● 가액: 3억 5천만원</li> </ul> <p>031)771-4942</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남원 전주간 국도 2분거리</li> <li>● 대지: 120평, 법당 30평 방 7개, 삼층불 (108불조성)</li> <li>● 가액: 6천만원</li> </ul> <p>063)634-8607          017)622-1491</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270평</li> <li>● 법당: 16평</li> <li>● 지장전: 47평</li> <li>● 지하실: 60평, 3층 건물</li> <li>● 요사채: 28평</li> <li>● 가액: 2억 7천만원</li> </ul> <p>011)954-0509</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인천 시내</li> <li>● 대지: 1500평 이상</li> <li>● 건물: 28평</li> <li>● 가액: 답사 후 결정</li> </ul> <p>인천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위치 전망 좋은 명당임          011)321-0194</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강원도 인제</li> <li>● 대지: 142평, 田 3500평</li> <li>● 가격: 평당 2천원</li> <li>● 위치: 경기 연천</li> <li>● 田: 918평</li> <li>● 가격: 평당 8천원</li> </ul> <p>031)834-4324          016)768-4324</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강원도 태백산 도량</li> <li>● 평수: 약 830평</li> <li>● 특징: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층 각 30평씩, 방6개, 사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남굴당불사주을 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li> <li>● 스님이 몸이 안좋은인 관계로</li> <li>● 가액: 답사 후 결정</li> </ul> <p>02)2618-0767/011)753-0768</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li> <li>● 대지: 300평</li> <li>● 건물: 법당, 기와, 요사채,미륵 3층불</li> <li>● 특징: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li> <li>● 가액: 5천만원 (가격 절충)</li> </ul> <p>전남 군산 마복사          011)9646-3220</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급)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전남</li> <li>● 대웅전 20평 목조, 요사채 40평</li> <li>● 100년된 사찰임</li> <li>● 권리금: 2500만원</li> <li>● 임대료: 월 63만원</li> </ul> <p>011)696-4848</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찰 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임지다.</li> <li>● 평수: 60평 도량내에 부지 1800평 현재 현물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li> <li>● 특징: 신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뚜렷하고 풍혈이 얼음 되고 있는 형국. 대사할 부지임</li> <li>● 가액: 2억 5천</li> </ul> <p>018)533-7780</p>

가격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 마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 ◆ 심한 피로·정력강화
- ◆ 2가지 희귀치 개선
- ◆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변비개선
- ◆ 은발생·피부 고와저
- ◆ 감기에 강한 체질로

▶ 가격: 분말(230g) ₩39,000원(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